

광주·전남 가계빚 15개월만에 3조4천억 ↑

한은 1분기 가계신용...가계 빚 1460조원대 사상 최대 금리 상승에 이자 상환 부담...소비 위축·가계 부실 우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 빚이 1460조 원대로 늘어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강화로 '대출길'이 막히면서 가계신용대출이 증가, 덩달아 광주·전남지역의 가계 빚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국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450조8000억원)보다 17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

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부문별로 가계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387조원으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16조9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668조9000억원)이 8조2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7000억원 증가한 314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보험과 연금기금,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03조5000억원으로 8조원을 늘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타대출 잔액도 4조9000억원이 증가한 401조원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전국 가계신용이 늘어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16년 21조7272억원에서 지난해 22조804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는 23조1110억원까지 늘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무려 1조3838억원(6.37%)가 불어난 셈이다.

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폭은 더 크다. 지난 2016년 19조2044억원에서 지난해 21조1280억원, 올해 1분기 21조2993억원으로 2조949억원(10.9%)이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에 비해서는 증가폭은 낮았지만 여전히 잔액이 늘고 있다.

광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13조5102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조1403억

원으로 6301억원(4.6%) 증가했고, 전남은 7조4814억원에서 8조645억원으로 5831억원(7.79%) 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민간소비 위축과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기타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 3월부터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이 도입돼 있어 기타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1.91 (+6.34)	↓ 금리 (국고채 3년) 2.24% (-0.02)
↓ 코스닥 869.16 (-3.80)	↓ 환율 (USD) 1080.70원 (-4.70)

광주·전남 무역 흑자 12억3600만 달러 4월 전월비 22% ↑ ...광주 수출 8% 줄고 전남 54%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22.0% 늘어난 12억3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 중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30.7% 증가한 45억2700만 달러, 수입은 34.2% 증가한 32억9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한 12억3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9%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 기준 41억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수출에서 석유제품(20.4%), 철강(33.9%), 등이 증가했고 수입 주력품목인 가전제품(170.0%), 원유(80.4%), 반도체(15.4%) 등의 수입도 증가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한 12억400만 달러, 수입은 13.3% 증가한 5억200만 달러로 무역수지 32억9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0% 증가한 33억2300만 달러, 수입은 38.9% 증가한 27억8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34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8월까지 아파트 2487가구 입주

광주·전남에서는 오는 8월까지 아파트 2487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돌입할 우려를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광주·전남지역에서 2487가구가 완공돼 입주에 들어간다.

광주에서는 8월까지 1060가구가 주인을 맞는다. 광산구 송정동 KTX역 모아엘가 341가구의 6월 입주를 시작으로 8월 서구 쌍촌동 엘리체(602가구), 화정동 브이테라스(117가구) 등이 이사를 시작한다.

전남은 1427가구가 7월까지 해남과 순천 신대지구 새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제철 농축수산물 싸게 사세요” 광주하나로마트 수원점(사장 나규상)은 개장 7주년 행사 성공기원 발대식을 열고 오는 6월20일까지 제철 농·축·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고객 감사 사은 대전’을 진행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세화아이엠씨 前 임직원 횡령배임 327억

6억3600만원 추가

지역 향토기업인 세화아이엠씨 전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추정 금액이 6억원 늘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횡령·배임 추정액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화아이엠씨는 전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퇴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6억3600만원이 추가됐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이 밝힌 횡령·배임 규모는 327억85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7.0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존 공시 때는 320억4900만원(자기자본 대비 26.52%)으로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효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세화아이엠씨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데 따라 한국거래소에 오는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납품 신형 SUV '아틀라스'

폭스바겐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틀라스 2018년 신형 모델에 금호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OE)가 사용된다.

금호타이어가 신형 아틀라스에 공급하는 제품은 SUV 전용 베스트셀러인 '크루젠 프리미엄'(KL33)으로, 크루젠 시리즈는 고성능 SUV에 최적화된 스포츠 성능을 구현하도록 오펜드에서의 핸들링, 제동력, 고속주행 안정성 등과 같은 기능을 갖췄다. 특히 연비효율을 높이며 향상된 주행 안정성 및 마모 성능이 특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업 연구기관 유망기술 전수

한국광기술원, 내일 中企·벤처기업 대상 사업화 설명회

광주지역 광(光) 산업 연구기관들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광기술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광기술원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광기술원을 비롯, 지역 광산업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보유한 핵

심 기술에 대한 설명과 사업화를 위한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소개할 기술로는 ▲의료영상 분할장치(한국광기술원) ▲센서용 사물인터넷(IoT) 메시지 표준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러 회전 방식 스캐닝 라이다 기술(전자부품연구원) ▲초고강도 강판용 성형품 제조기술(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1개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연구기관들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설명회에는 각 기술 총괄책임자가 직접 나서 활용 가능한 현장 및 특징을 10분 내외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적외선 터치스크린 시스템(한국광기술원)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전자부품연구원) ▲전기자동차용 2단 변속장치(자동차부품연구원) ▲무선 전력 전송 장치(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00건의 사업화 유망 기술에 대해서도 현장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공공분야의 우수한 R&D 성과물을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KPS, 파키스탄에 1321억 공사 수주

2020년 10월 착수...화력발전 운전·정비

한전KPS(맹동열 사장직무대행)는 지난 22일 파키스탄 'LEPCL'(Lucky Electric Power Company Ltd)사와 660MW 대용량 화력발전소에 대한 1321억원 규모의 운전·정비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한전KPS는 앞으로 10년 8개월 동안 설비용량 660MW의 LEPCL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전과 고품질 책임정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LEPCL 660MW 석탄 화력발전소는 오는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한전KPS는 준공 8개월 전인 2020년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전KPS는 이번 사업 계약을 통해 서남아 발전정비시장 점유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는 인도, 요르단, 필리핀 및 우루과이 등 세계 8개국에서 11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726-0482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복포여수순천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